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26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6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

견학 및 간담회 (06.05)

소중한 손님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15명의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본원에 견학을 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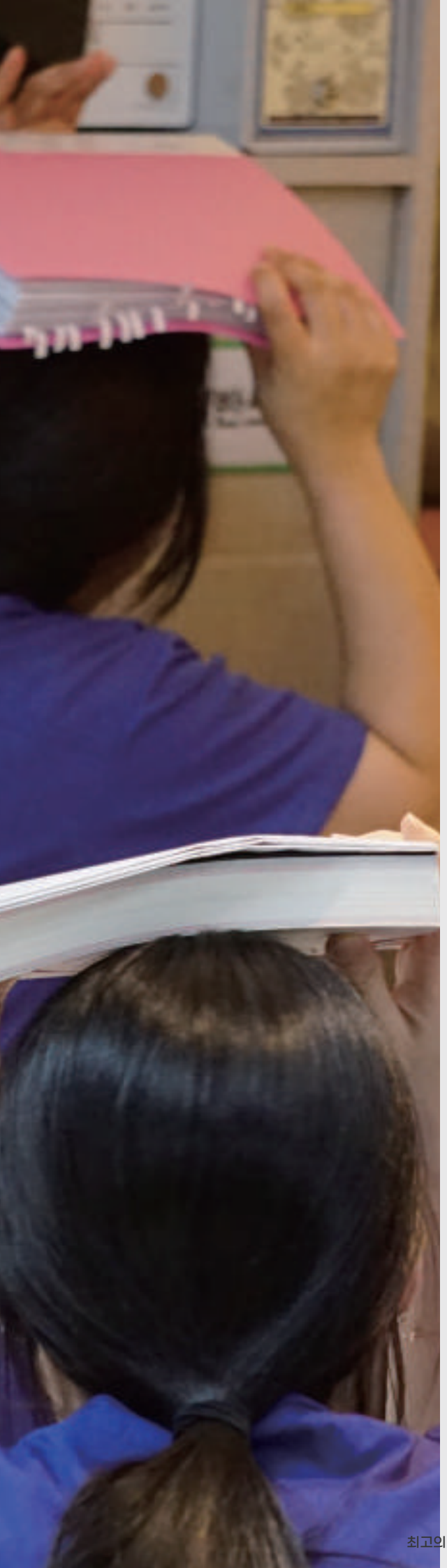
많은 인원이 따로따로 오시는 거라 넉넉하게 오후 2시 40분부터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고, 3시가 다 되어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8명, 7명 두 조로 나눠서 병원 라운딩 하는 시간을 가졌고, 라운딩을 끝내고 9층 회의실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재활의학과 김완호 의료원장님과 김인혜 진료과장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조직문화성장실 박선미 실장님이 병원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병원 홍보영상 감상을 시작으로 병원 연혁과 미션, 비전, 핵심가치, 로고, 조직도 등 다양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재활의학과 김완호 의료원장님이 장애인건강권법 핵심에 대해 먼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날은 재활의료(진료, 치료, 간호, 사회사업, 재활코치) 전체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어서 4층 컨퍼런스 진행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함께하였고, 마지막 일정으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만의 특별한 공간인 '전환홈' 장소로 이동하여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님이 법인과 전환홈에 관해 약 30분가량 설명을 듣는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위소방대 재난훈련 (06.04)



지진발생을 대비하여 지진발생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인명과 시설을 지키는 재난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상 지진"이 발생하여 재난관리 메뉴얼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였고, 각자 임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며 실습을 병행하였습니다.









준비된 퇴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주거환경개선

사회사업팀 김지헌 팀장 (06.12)

참여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7회기 교육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연계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퇴원 이후까지 일상에 도움이 될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의 첫걸음, 가정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바와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 출입구 접근로 개선 등 다양한 혜임당 주거환경사업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참여자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탐색하는 동시에 주거환경개선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준비된 퇴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이동 편의를 돕고, 트랜스퍼로 인한 낙상 위험을 낮추며 그 외 외상 등 2차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장애인 보조기기'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정'

재활코치팀 성민규 팀장 (06.26)

2024년 슬기로운재활생활 1회차 교육의 마지막 8회기 강의 시간에는 재활코치팀 성민규 팀장님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동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수동/전동 휠체어, 전동리프트), 일상생활, 의사소통, 자동차 보조기기의 종류를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필요한 보조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신체적 피로, 부담감을 낮추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자존감 향상 그리고 경제적 자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여정에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이해, 인식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장애수용 과정에 함께하며 일상의 행복을 빠르게 되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재활프로그램 '슬기로운재활생활'에 참여하여 재활치료 의지를 다져나가고 준비된 퇴원을 위한 과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님은 외출준비 마치시고
영화관람을 위해 해운대CGV로
출발하였습니다. 병원에 오시기전에
일상생활에서 영화관을 자주 가셨다고
내심 기대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착해서 예매를 한 후 상영관 뒷문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퍼를 하고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좌석전체가 모션베드로
되어있어서 나에게 편한 자세로
조정하시고 관람하였습니다.

마동석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라
재미있으셨는지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밖으로한걸음씩 (06.03 / 06.05)

이○○님은 앞서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하고 마지막
도로주행시험만 남았습니다.
도로주행교육을 3회 받고 당일에
시험까지 응시하였습니다.

장내기능시험을 3번 만에 붙어서 이번
시험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육받을 때 열심히 하였고
충분히 합격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이 끝나고
시험장으로 돌아와서 차문을 여는데
환한미소를 띠고 보니 합격이다
생각했었는데 감점 하나없이 합격했다고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든 운전면허취득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실전 무사고 안전운전을
바래봅니다.



휠체어스쿨(06.19)

다음주 퇴원예정이신 이○○님과 김○○님은 휠체어바이크가 오늘 도착하여 5층테라스에서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해운대 미포철길 산책로를 이용해 송정까지 가는 것 이었습니다. 활동형휠체어를 타고 나갈 때는 주변에 볼 여유가 없었는데 휠체어바이크를 이용하니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30도를 넘는 날씨에 시원한 바람과 공기 좋은 산책로를 통해 힐링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 시상식 (06.07)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채○자, 주○우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자립활동과 꾸준한 출석으로 시작한 참여자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만나서 반갑습니다’ (06.01)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님과 함께 첫 번째 토요일,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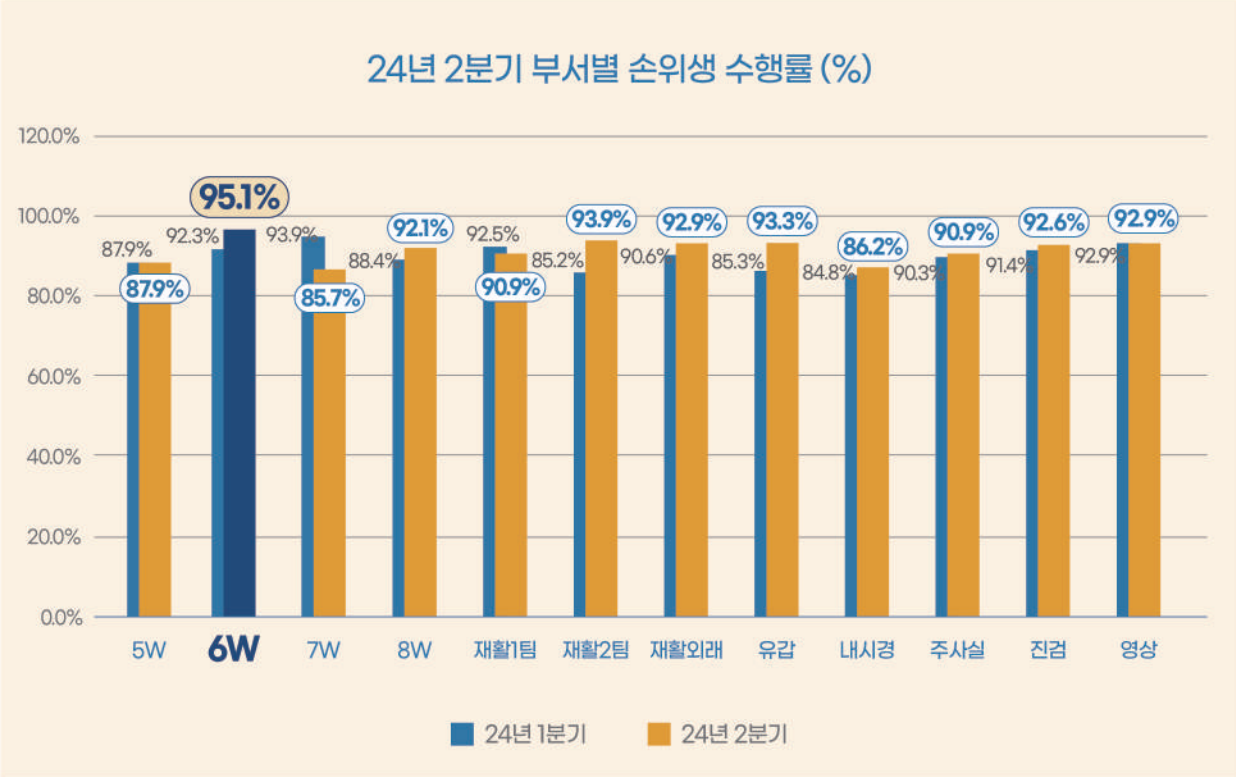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직원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며 건강 박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웃음’으로써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날려버리고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원 웃음치료 프로그램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3시 30분, 9층 회의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층 생활재활센터' 2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6.18)

분기별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2/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에 6층 생활재활센터가 95.1%로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 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2024년 6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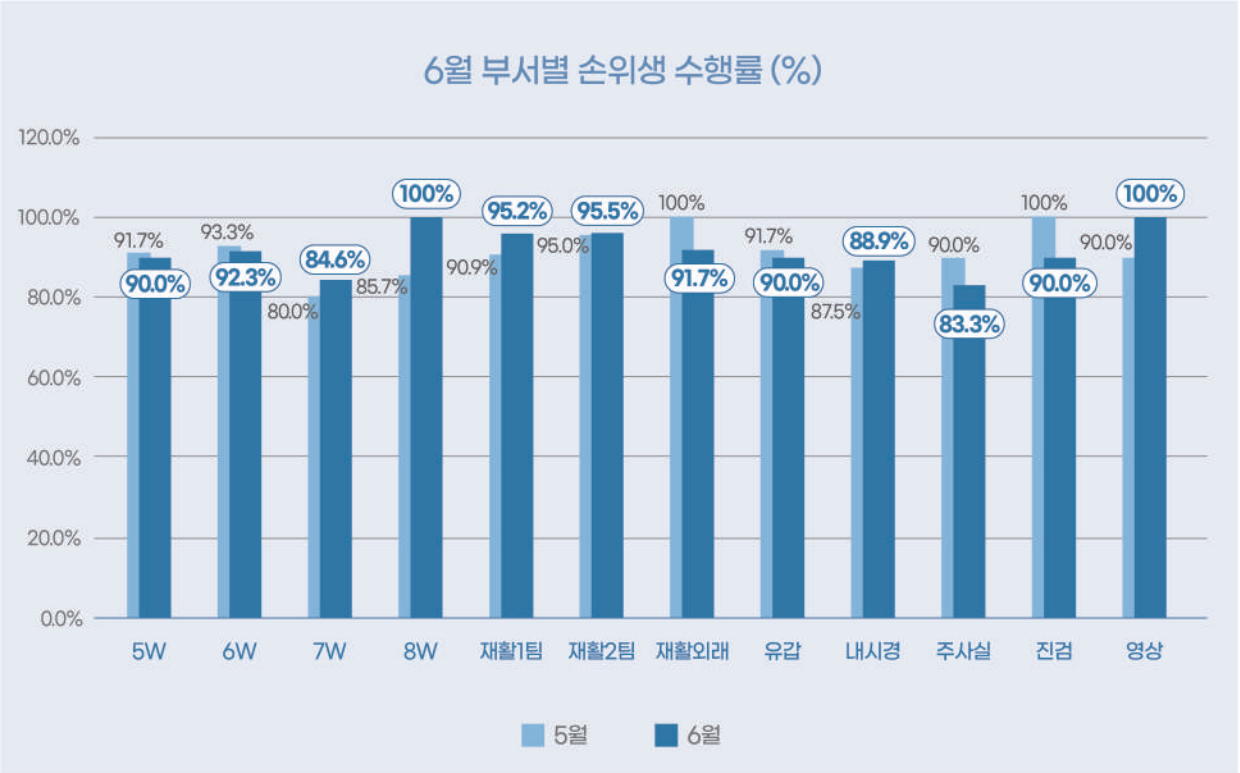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6월 01일 ~ 2024년 06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5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44	133	92.4%	+1.6%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2분기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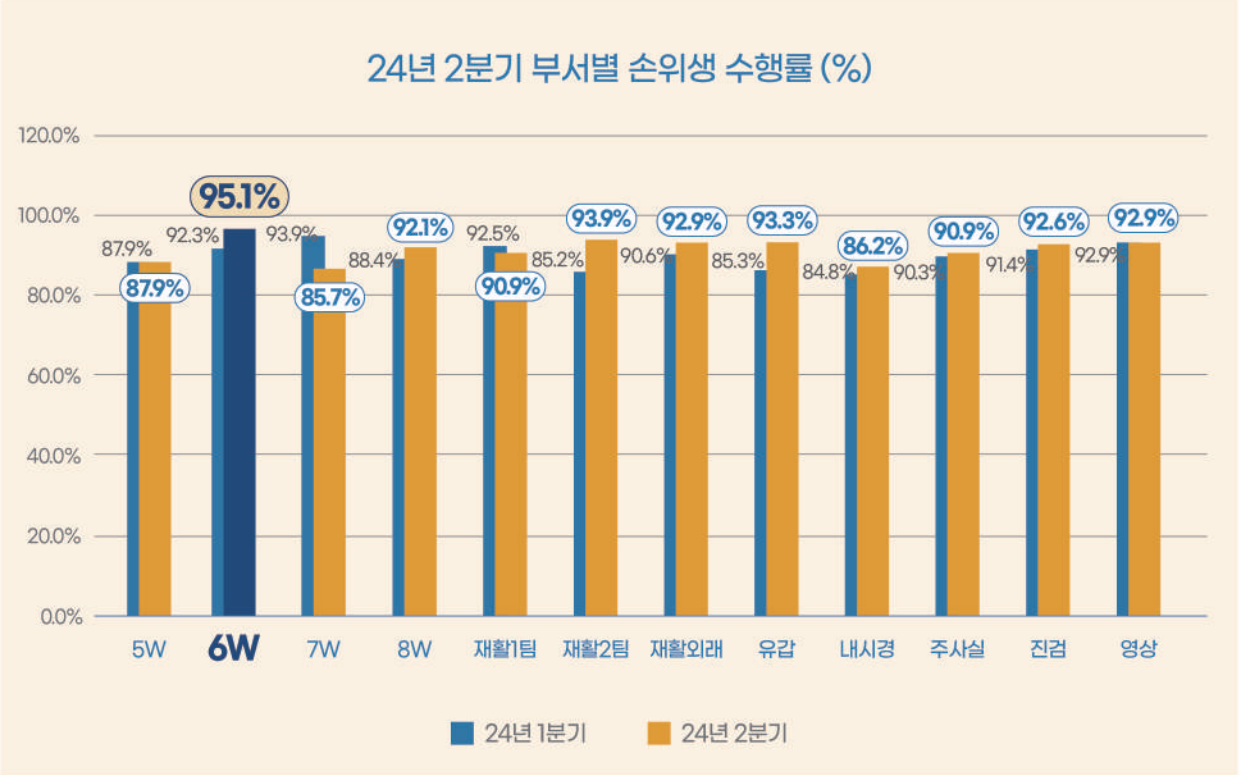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6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450	411	91.3%	+ 1.7%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복귀지원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05

첫만남, 소통의 창구로 숨통이 트이다

참여자는 40대 중년의 나이에 뇌출혈 후유장애로 인해 본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의 첫 만남은 배우자와 진행하였고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 분리,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등을 호소하며 힘겨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참여자는 건설업을 이끈 개인사업자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투자자의 갑작스러운 철회로 공사 중단의 위기가 있었지만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본인의 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대출과 공사 대금 등을 모두 떠안게 되었고 늘어가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택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참여자의 간병을 위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친정 부모님에게 양육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참여자의 주보호자, 두 자녀의 엄마로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와 진솔한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파산 이후 개인회생, 자택 경매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승인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의 돌봄과 가족 지원을 받는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고 이에 안심하며 긍정적인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 분리 문제로 가족 재결합을 위해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배우자 취업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상담을 통한 정서지지

배우자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병원 생활의 어려움, 참여자의 회복에 따른 걱정 등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전에는 주부로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왔어요.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해서 힘들고 다 놓고 싶어요. 끝이 없는 터널이예요.' 라며 힘듦을 호소하는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지지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욕구 사정을 통해 참여자, 배우자의 욕구를 분석하였고 생태도를 활용하여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참여자의 지인이 현재 법적 문제해결, 변호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어 의지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애물, 외부 장애물을 사정하여 내부 장애물은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부 장애물은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앞으로의 계획과 예측가능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사정하여 욕구, 자원, 강점, 장애물들을 각 사정하여 함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지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이어집니다. >

사회복귀지원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05

가족과 개별 서비스 계획을 함께하다!

참여자, 배우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외부 장애물들로 인해 지체되는 상황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개별 서비스 계획을 함께 수립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며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인생의 큰 틀을 계획해 나갔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승인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이후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으며 가족 회복 및 재결합, 자택 경매 및 이사, 퇴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달 후 개인회생이 승인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의료비 35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통합간호간병서비스를 활용하여 간병을 내려놓고 취업을 목표로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한식조리사'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틈틈이 전화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제도를 연계하여 지연 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택 경매도 마무리되어 현재 참여자는 퇴원 후 본원 근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였고 일상재활센터를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자립 의지를 다지고 계십니다.

배우자는 '이 병원 아니었으면 남편도 이만큼 회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만큼 해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이 병원을 선택한 거예요.' 라며 본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차체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참여자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과 본원을 오가며 일상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재결합은 계획 중에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자로 2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전학을 하여 다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가족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
<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
<tr><td>남성</td><td>40대</td><td>기초생활수급</td><td>뇌출혈</td><td>2022. 12.</td><td>2023. 02. ~ 2024. 02.</td></tr>
</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4인 가구(부부자녀가구)
■ 주보호자 : 배우자</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치료에 대한 적극적 의지
■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치료비 및 생활비 부담이 큼</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EV O)
■ 주거환경 : 미끄럼방지매트, 안전바 미설치</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가족분리로 추후 가족 재결합
■ 재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
■ 치료계획 : 낮병동
■ 이동수단 : 지팡이 사용, 독립보행, 대중교통 이용 가능</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마음톡톡
■ 정서지원 : 웃음치료, 이벤트 PG</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해운대에 ON 통합돌봄
■ 한마음스포츠센터
■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지원</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벤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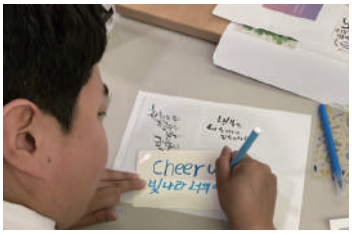
‘응원 메시지 무선 무드등 만들기’ (06.27)

이번 달에는 ‘응원 메시지 무드등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응원 문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에 서로의 글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무선 무드등을 각자 취향에 맞게 꾸미고 응원 메시지를 새기며, 나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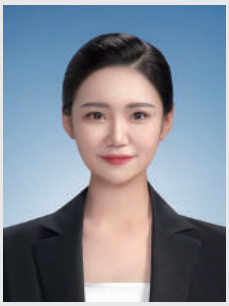
참여자 모두 응원 메시지 무선 무드등으로 기분 좋은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6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6W) 차지윤 간호사



재활간호팀(5W) 이영주 간호조무사



재활치료1팀 표나연 물리치료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김○○님(60대)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본원에서 재활치료 후 퇴원하셨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기능상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서 보호자 도움 하에 천천히 이동 또는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신 분이나 자택 내 현관 입구,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와 세면대가 없어 낙상 위험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주거환경 평가 결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은 현관과 화장실로, 현관 입구와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세면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혜임당 주거환경개선사업 (06.24)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혜임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참여자 가정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심사를 통해 김OO, 이OO님 총 2명이 선정되었으며 6월 24일, (사)나행동 운영진과 사회복지사, 인테리어업체 대표님이 함께 김○○, 이○○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님(70대)은 뇌종양, 뇌출혈로 본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며 준비된 퇴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현재 좌측 상하지 편마비로 인해 독립보행이 불가하여 실내에서도 휠체어로 이동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님의 자택은 4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으로, 거실에서 화장실과 부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40cm의 단차가 있었고 공간도 좁아 휠체어로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주거환경 평가 결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이에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고 화장실 입구 단차를 제거하고 그 외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나행동은 재활전문가가 함께하여 맞춤형 개선사항을 조언해 드리고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할 김OO, 이OO님의 주거 공간을 기대하며 직원들과 함께 주변 환경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계시는 김○○, 이○○의 '가정복귀'를 응원합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15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휠체어 전달식' (06.16)

6월 16일 일요일,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제16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진행하였으며 걷기대회에 앞서 개막식에서 의료기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사업팀이 참석하여 휠체어 1대를 지원받았으며 간호간병통합병동의 노후화된 휠체어를 교체하여 참여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치료비 지원 및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용 프로그램 (06.21 / 06.21 / 06.28)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의 자원봉사자께서 입원 참여자를 위해 매월 1회 방문해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1명이 이미용 서비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객의 소리 '칭찬합니다'

이청득심(以聽得心),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병실의 인상이 매우 밝고,
분위기가 따뜻하며,
간병인분 포함 모두 얼굴에
미소와 여유가 있어
가족을 맡겨 둔 보호자의
마음이 매우 편안해진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친절하며
인상이 부드러우며,
의사와 면담 시 환자에게
따뜻한 공감을 해줘서 감사함이
느껴진다.
병원을 믿고 재활에 힘을 쏟을
수 있을 듯하다.

전문재활

환자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귀 병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문 접수 하시는 분의
친절한 안내에 마음을 내려놓게
되죠.
모든 직원 분들이 따듯하게 잘
대해주시고 담당선생님께서도
검진 잘해주셨습니다.

경영지원실

남지현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기계적인 설명만
듣다보니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의료도 따뜻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과내시경센터

직원분들과 의사님들의
세심하면서도 친절한
고객 의료서비스가 좋았음

비타민면역센터

검진 받으러 온 사람들의
감정과 입장을 잘 챙기고
친절하게 안내, 검진해주었음.

건강증진센터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친절하셨고 아주 체계적이라
검진 종목이 끝날 때마다
바로 바로 안내받고 진행되어서
헤매거나 당황스러운 점 없이
너무 편했어요.

갑상선유방센터

현재 우리병원 고객의 소리(VoC: Vocie of Customer)는 '브랜드전략팀'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당 팀에서 볼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각 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기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6.11)

점심(點心)

낮에 먹는 식사를 점심이라 하지만,
본래는 선종에서 선승들이 수도를 하다가 시장기를 느끼면,
공복에 점을 찍듯이 소식(小食)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식으로 뱃속에 점을 찍을 만큼 적은 양의 식사를 유지하고 계신가요?ㅎㅎ

오늘은 점심 본래의 의미에 따라
공복에 점을 찍듯이 가볍게 준비하려고 분식으로 구성을 하였으나,

지금 이 시각 주방에는
점을 슈퍼 점보 사이즈로 찍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부볶음밥, 로제떡볶이, 순대, 왕소시지, 땡초어묵탕이
점을 찍기 위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냄새부터...가벼운 점은 이번에는 글렀고,
소박한 점찍기는 다음을 기약 하겠습니다.

잔반 없이 점을 깔끔하게 딱 찍으신 분께는
설레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임과 함께 하는 설렘 가득한 오후가 되도록
깔끔한 점찍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스물 여섯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26

아빠 필기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의 반응

어떤 영역이든 반복적으로 접하면

낯섦은 익숙함으로 두려움은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아버지는 글씨를 이렇게 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거실 테이블에서 공책에 필기하고 있는 나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렇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른의 글쓰기를 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짜인 각본에 의해 48번째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다. 올 봄에는 무엇에 꽂혔는지 '오십에 읽는 ○○' 시리즈에 유난히 관심이 갔다. 아직 50에 1년하고도 무려 6개월이 남았는데 말이다. 내년 아홉수에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봐야할 책들이지만 1년 앞당겨 이 책들을 선택한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그건 또 완주하지도 못할 '필사'에 대한 끓어오르는 의욕이 문제였다.

어떤 영역이든 반복적으로 접하면
낯섦은 익숙함으로 두려움은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어려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_이정훈《쓰려고 읽습니다》(책과강연)

몇 년 전인가 처음으로 '필사'를 선택했었다. 그 책은 어렵기로 소문나고 두껍기로 알려진 '칼세이건'의《코스모스》라는 책이다. 하루 몇 페이지씩 공책에 손 글씨로 적으며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찾아보는 식이다. 첫 며칠, 아니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적었던 거 같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해되지도 않는《코스모스》책을 펼치고 나름의 흥미를 찾아서 삐뚤빼뚤 적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궁금했고, 거기서 시작한 호기심은 세계사로 우회전하며 나의 첫 필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두 번째 필사는 '김훈'의《자전거 여행》이다. 이 책의 구입에 관한 에피소드는 '내가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브런치(2024.4월 소식지)에 올렸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이 책을 이번에는 손 글씨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 필사하고자 했다. 손 글씨는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편안함을 선택했다.《코스모스》가 지식을 위한 필사였다면,《자전거 여행》은 문장력, 어휘력에 도움이 될까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 필사도 보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던 기억이 난다. 이유는 따로 없었다. 자발적 글쓰기엔 부담 없는 퇴장이라는 스스로와의 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필사는 E드라이브 어느 폴더에 2년째 잠자고 있다.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 필사카드를 꺼내었다. 아이들에게 받은 책 6권을 오십이 되기 전에 모두 필사하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러니 1년 6개월이 남은 셈이다. 내년에 다짐했으면 현실 불가능했기에 1년 앞당겨서 시작했다. 이번 필사도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 아직은 15일째 매일 아침에 40~50분가량 필사에 성공하고 있다.

아침에 부족하면 저녁에 분량을 채운 적이 2~3번 있다. 그 첫 번째 저녁에 적은 날이 작은 아들(초5)이 아버지의 글씨를 제대로 들여다본 날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숙제해라. 독후감 써라. 써라. 또 써라며 글쓰기를 강요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의 글쓰기를 본적이 없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고 보니 애들은 학부모 동의서에 싸인 할 때나 볼펜 쥔 부모의 모습을 봐왔을 것이다. 조금 더 보태자면 마트나 음식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재하고 패드에 사인하는 정도. 지금처럼 디지털 세상에 아날로그로 볼펜 쥐어가며 노트에 글을 빼곡히 적는 어른이 평범한 풍경은 아닐 터이다.

나름 아이들에게 어른도 숙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66일 글쓰기를 무려 4번이나 참가한 나였지만, 그 마저도 노트북을 켜고 숙제를 적는 모습만 보여줬었다. 그러니 아빠의 볼펜 쥐고 글 쓰는 모습이 낯선 건 어쩜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제)일요일 오전, 아이들이 저마다의 숙제를 위해 책을 펼치고 연필을 쥐었다. 나도 그 틈에 끼어 독서대 위에 책을 펼치고 노트에 필사를 위해 볼펜을 쥐었다. 주방에 설거지를 끝낸 아내가 책 한권을 손에 쥐고 오면서 옆 자리에 앉으며 얘기한다.

"그래, 이러려고 소파 없애고 6인용 책상을 거실에 들여놨었지~"

네 식구 거실에서 말없이 각자의 책에 머리를 파묻고 1시간가량을 집중했다. 휴대폰을 내어놓고 책을 선택한 시간이었다.

> 짧은 끈기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을 끝내는 방법은
> 딱 하나뿐이다.
> 하다가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할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 멈춰 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 _강미영《사진으로 글쓰기》(북바이북)

사실, 이 필사가 또 미완의 작품으로 덮인 채 먼지만 쌓일지 모른다. 또한, 이 필사라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걸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책 한권 필사한 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걸 몸소 경험하고 싶었고, 스마트폰 짧은 영상이나 사진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삐뚤빼뚤 글씨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었다.

한 시간 가량 빼곡히 글을 따라 쓴 아빠에게 작은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팔이랑 손 안 아파요?
저는 영어 단어 숙제 할 때 엄청 아프던데..."

(아파 죽것다 이놈아! 하지만 또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읽고 싶어 읽는 책은 재밌고,
하고 싶어 하는 글쓰기는 안 아프단다."



그렇게 아빠는오늘도 '사기' 쳤다.

이번 필사의 책 제목은
《오십에 읽는 '사기'》니깐.^^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4년 06월 30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